

# 통합돌봄센터 계획을 위한 고령인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태 연구

- 경기도 남부 4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Use of General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Planning of Integrated Care Center

- Focused on four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outhern Gyeonggi-do

한은비 Han, Eunbee\* | 장진상 Zhang, Jinxiang\*\* | 권순정 Kwon, Soonjung\*\*\*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basic data for desirable location and functions of the integrated care center. **Methods:** Survey, Questionnaire and statistical analysis are the mai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 order to collect data related to utilization pattern and favorite functions of the senior people, researchers have visited 4 social welfare facilities located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403 questionnaires have been gathered from 4 facilities and they have been analyzed by using Excel Program of MS. **Results:** First, compared to other services, healthcare services have been preferred by many older people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is means that integrated care centers providing health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rather than services for children or disabilities is desirable. Second, Integrated Care Centers had better be established within the walk distance of elderly people. If it is not easy, the introduction of shuttle bus for older people is desirable. Especially, in case of large Care Center. **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small facility with community care rather than big facility is desirable for small community in the point of friendliness, convenience, economy, etc..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bine welfare service and healthcare service even in small centers.

주제어: 통합돌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돌봄서비스, 고령인구

Keywords: Integrated Care Center, Integra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Care Service, Elderly Population

## 1. 서론

### 1.1 배경 및 목적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4.9%를 넘어 26년에는 20%대에 진입하게 되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국내 노인은 대부분 1인 가구(34.2%), 부부(33.2%) 등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sup>1)</sup>(통계청, 2019). 65세 이상 독거 노인은 2018년 140만명

에서 2035년에는 300만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8) 향후 노인들에 대한 보건복지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는 신체 특성을 고려한 복합만성질환<sup>2)</sup>, 장애상태, 치매여부, 가족돌봄지원의 결핍을 고려한 독거상태 등 총 4가지 주요 요인으로 파악한다. 돌봄 욕구는 개별적인 욕구보다 주요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더 큰 돌봄 욕구가

\*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주저자: handmsq12@ajou.ac.kr)  
\*\*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명예회장,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교신저자: sjkwon@ajou.ac.kr)  
본 논문은 복지부에서 수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모델개발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1) 고령자 가구 구성은 1인 가구(34.2%), 부부(33.2%), 부부+자녀(9.6%), 부(모)+자녀(5.5%) 순으로 나타남.  
2) 복합만성질환은 치매를 제외한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며, 질병간 상호 작용 및 복합적 의약품 사용으로 관리가 필요함. 또한 일상생활에서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질병인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 합병증 등의 위험으로 단독적으로 진단받아도 지역사회돌봄이 필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본 집단에 포함하였음.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노인 인구 중 92.3%가 최소 한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3가지 이상 복합적 요인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약 4.1%이다. 4가지 요인 모두 가지고 있는 노인은 7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석재은, 2018 :70). 따라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자 가구 중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점을 바탕으로 노인의 '돌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돌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케어가 필요한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제공기반을 구축하며, 2026년 이후에는 서비스 보편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2022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선도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2007년 발표한 고령친화도시 수립지침은 도시의 여러 시설과 서비스는 고령자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과 일반인은 이동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돌봄 센터를 건립할 때 시설의 적정한 위치 설정을 위해서는 노령인구의 이동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통합돌봄센터의 계획시 필요한 입지 및 기능선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노인의 이동성,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한다. 통합돌봄센터의 개념을 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하여 정의하며 연구 모델의 필요 요소를 정리한다.

전문가<sup>3)</sup>의 협조를 받아 네 곳의 복지관을 추천받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 복지관 4곳은 방문이 용이하고, 시설이 활발히 운영되어 노인들에 대한 다수의 설문 가능한 곳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수원, 안양, 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네 곳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1)조사대상자 일반사항, 2)복지관 이용 형태, 3)향후 바라는 점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엑셀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문헌조사

### 2.1 사회복지관과 통합돌봄센터

고령화에 따라 보호자들의 고령자 간병부담이 증가하고 있

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어 공공의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과 복지서비스 담당 부서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과 유사하지만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돌봄센터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과 통합돌봄센터 두 기관 모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서비스대상이다. 사회복지관은 복지(welfare)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반면 통합돌봄센터는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돌봄요구자들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통합돌봄센터의 경우 사회복지관보다 타인의 도움이 더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돌봄(care)서비스가 제공된다(권순정, 2019 ;163).

[표 1] 사회복지관과 통합돌봄센터 비교

구분	사회복지관	통합돌봄센터
개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보건복지부, 2019).	통합돌봄센터는 생활 SO(C)를 위한 대표적인 복합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보건 복지 욕구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 (권순정, 2019 ;203).
역할 및 기능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 (보건복지부, 2019).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노인 및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건 의료·돌봄·요양, 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이용시설 (권순정, 2019 ;204).

### 2.2 노인의 이동성

노인들은 주로 주거지 인근 지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비율이 도보 이용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도보권의 시설로는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대도시권 대중교통 이용 고령자를 대상으로 통행활동을 연구한 결과에서 고령자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지역까지의 이동이 활발한 것을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거지를 벗어나 근린지역이 아닌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4)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있다(한수경·이희연, 2015).

노인의 야간밀집지역<sup>5)</sup>에 있는 노인은 의료, 쇼핑 등 필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외부 이동이 어렵다. 따라서 지역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유진·최명섭, 2018). 시설의 위치선정 시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하철역과 가까운 것이 좋다.

농촌지역은 차량 보유율이 낮고, 의료 시설과의 거리와 이동 시간이 길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크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의료서비스 이용 제약 완화를 위해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가 필요하다(이유진·김의준, 2015).

이와 같은 분석결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활동수요를 충족시킬 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신체적 제약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에는 노인들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넓은 활동범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되어야 한다.

### 2.3 노인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2020년 현 정부의 정책공약 중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공간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들의 적절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전용호, 2018).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단절이다. 즉 영역 간의 교류가 취약해 일원화된 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절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석재은 외, 2018 ;111). 향후 하나의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3. 설문조사 및 분석<sup>6)</sup>

### 3.1 설문개요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4곳의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 이용자가 노인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복지관의 이용률이 높은 곳, 방문이 용이한 곳 가운데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추천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5) 야간에만 노인이 밀집한 지역은 대체로 주택환경이 불량하고 일상활동 수요 시설·서비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용호, 2018)

6) 경기 남부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를 조사하였으며, 수원시에는 6곳, 안양시 4곳, 화성시 4곳의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다.

[표 2] 노인의 이동성과 노인돌봄서비스 선행연구

구분	제목	저자	년도	내용
이동성	서울대도시권 고령자의 시간대별 대중교통 통행흐름 특성과 통행 목적지의 유인 요인 분석	한수경, 이희연	201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동선 특성을 파악하고 통행 목적지의 유인 요인 분석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의 적용-	이유진, 김의준	2015	농촌, 도시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 관점에서 분석
	노인 인구 밀집지역의 시공간적 분포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 생활인구 빅데이터의 활용-	이유진, 최명섭	2018	주간과 야간, 평일과 주말의 노인 인구 밀집지역의 시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분석
서비스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전용호	2018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분석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른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개편방안 연구	석재은 외	2018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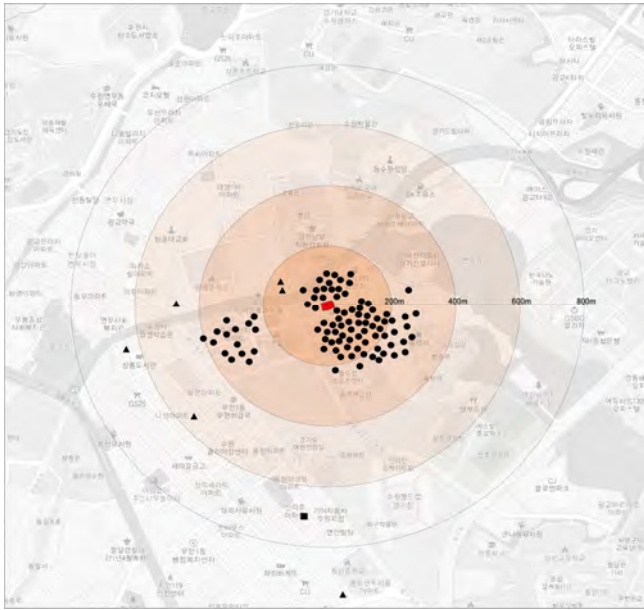
4개 복지관에 각각 100부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유효설문 총 373개가 수집되어 이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비노인인 50대를 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1)조사대상자 일반사항, 2)복지관 이용형태(6항목), 3)노인 서비스 욕구(3항목)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관한 항목들은 연령, 성별, 주거형태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며 응답자의 기본 특성에 관해 질문하였다. 복지관 이용형태에 관한 항목들은 복지관 이용횟수, 복지관을 이용한 기간, 복지관에 머무르는 시간, 복지관 방문시 소요시간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며 응답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행태에 관해 질문하였다. 노인 서비스 욕구에 관한 항목들은 복지관에 추가적으로 바라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며, 응답자가 복지관에 바라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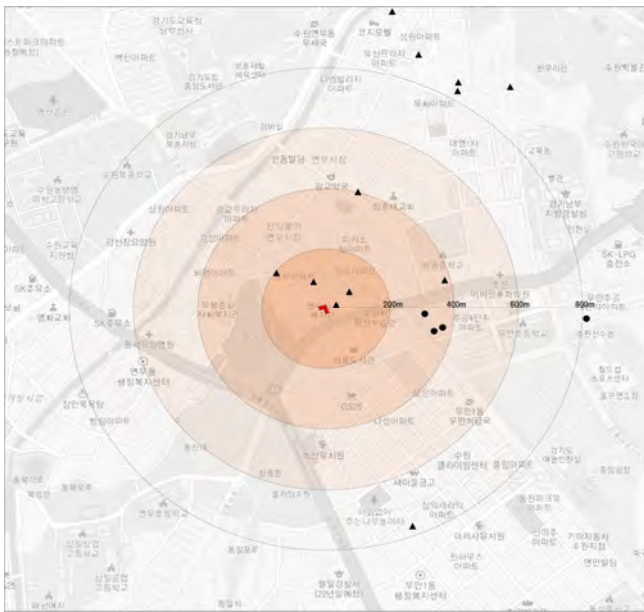
### 3.2 조사 복지관 개요 및 입지

[표 3] 조사복지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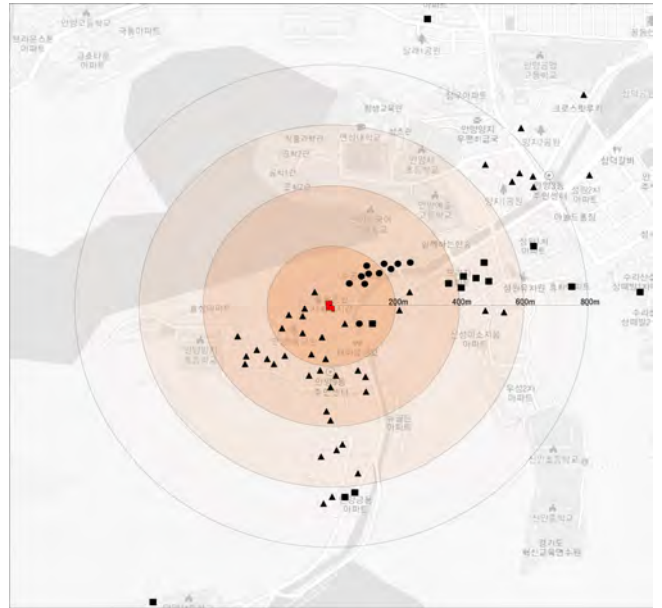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개관연도	1992	1986	2003	2011
대지면적(㎡)	925	661	1,268	13,233
연면적(㎡)	2,027	883	1,973	18,384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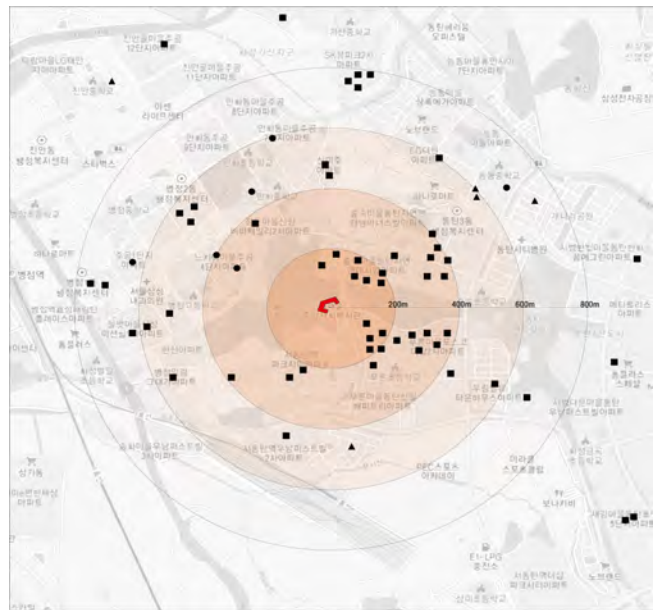
[그림 1] A 복지관 위치



[그림 2] B 복지관 위치



[그림 3] C 복지관 위치



[그림 4] D 복지관 위치

이용노인의 기입한 주거지를 기반으로 ■ 일반아파트, ● 임대아파트, ▲ 저층주택<sup>7)</sup>으로 분류하여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을 보면 A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500m 이내에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다. 기입한 주소록을 확인했을 때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용노인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 이용자는 400m 이내에 밀집되어 있어 도보로 이용하며 평균 10분 이내 복지관에 도착한다. B 복지관과 2차 서비스 지역, 3차 서비스지역<sup>8)</sup>과 중복된다.

7) 공동주택의 층수가 5층 이하의 경우 저층주택으로 분류하였다.

8) 1차 서비스는 동 지역 기준이며, 2차 서비스 지역은 구 전체, 3차 서비스 지역은 시 전체로 보았다.

B 복지관은 설문조사 대상 복지관 중 개관년도가 가장 오래 되었으며, 시설 규모가 가장 작았다. B 복지관의 경우 주거지 기입에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주소를 기입하거나 기억능력 저하에 따라 자신의 주소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4곳의 복지관 중 가장 많았다. 복지관은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다. 200m 이내에 일반아파트 단지, 500m 이내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인접하고 있다.

C 복지관은 복지관 인근에 임대아파트 단지 한 곳이 있으며, 500m 이내에 네 곳의 일반아파트 단지과 접하고 있다. 복지관 800m 이내 저층주택도 많이 위치한다. [그림3]을 보면 주소지로 저층주택을 기입한 노인이 가장 많았다.

D 복지관은 일반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일반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다. 4곳의 복지관 중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 복지관 4곳 중 유일하게 인근 지역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주거지가 4곳의 복지관 중 가장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센터들이 입주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통합적인 복지가 이뤄지고 있다.

### 3.3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응답자의 나이는 70대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설문조사 일반사항에 이용노인의 거주지 질문을 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주거지 기입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동까지만 기입하는 등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정확한 주소 기입이 되지 않아 다세대, 다가구 주택 구분은 불가능하였다. 전체 표본에서 주소지 무응답 비율이 34%이다. 응답자의 과반이 독거노인이며, 임대아파트 주민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아파트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평균	
연령	50대	11%	2%	1%	1%	4%
	60대	18%	11%	6%	24%	15%
	70대	48%	52%	46%	54%	50%
	80대	18%	35%	46%	20%	30%
	90대	4%	0%	1%	1%	2%
	평균	73세	76.1세	79.2세	75.5세	75.5세
주거 유형	임대APT	90%	8%	14%	8%	40%
	일반APT	1%	25%	14%	74%	25%
	저층주택	9%	67%	71%	18%	35%
동거 가족 형태	혼자	70%	41%	51%	39%	51%
	배우자	16%	38%	28%	45%	31%
	기타	14%	21%	21%	16%	18%

### 3.4 복지관 이용행태

#### 1) 복지관 이용 기간

복지관의 개관년도와 이용자들의 복지관 이용 기간과의 상관성은 높지 않았다.

[표 5] 복지관 이용 기간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0-5년	39%	59%	46%	63%	4%
6-10년	21%	34%	29%	37%	15%
11-15년	5%	4%	4%	0%	50%
16~20년	18%	3%	21%	0%	30%
21년 이상	17%	0%	0%	0%	2%
평균	11년	5.26년	7.7년	4.45년	7.4년
개관년도	1992년 (27년)	1986년 (33년)	2003년 (16년)	2011년 (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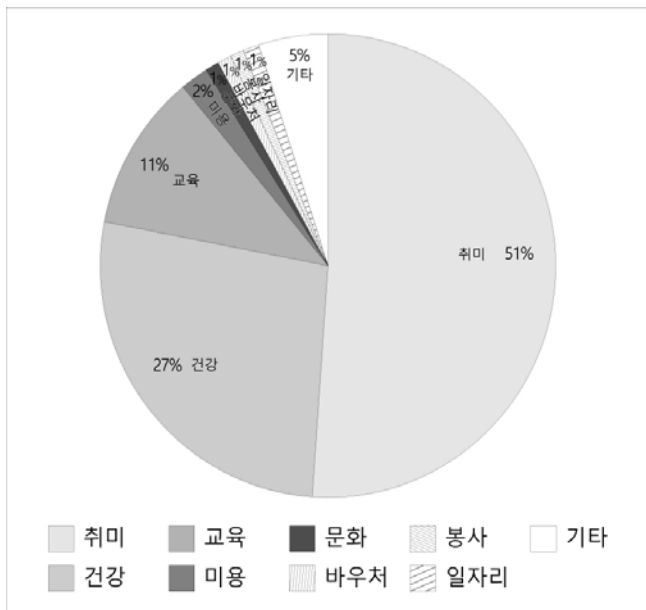
A 복지관은 개관 후 27년이 지난 복지관이다.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관이 가까이 있어 복지관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B 복지관은 개관 후 33년이 지난 복지관으로 4개 복지관 중 가장 오래되었다. 가장 오래된 복지관이지만 응답자들의 복지관 평균 이용기간은 5.3년으로 길지 않다. D 복지관은 최근에 건립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평균 이용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D 복지관을 제외한 복지관 이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0~5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6~10년'에 대한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A 복지관과 C 복지관의 경우, 16년 이상 복지관을 이용한 응답자수가 11년~15년을 이용한 응답자 수보다 많게 나타났다.

#### 2) 복지관 선호 프로그램

이용하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하였다. 모든 그룹에서 '취미'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 '교육', '미용'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문화', '바우처', '봉사', '일자리'에 대한 응답은 모든 그룹에서 응답률이 낮았다. 취미프로그램에는 합창단, 라인댄스, 요리수업, 노래교실, 공예수업 등이 있었다. 요가, 치매예방교육, 체조, 헬스, 웃음치료, 에어로빅 등은 건강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노인대학, 컴퓨터, 자격증공부 등은 교육에, 의료서비스, 도서관, 말벗 서비스, 바자회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6] 복지관 선호 프로그램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취미	49%	55%	38%	53%	51%
건강	25%	17%	18%	38%	27%
교육	2%	26%	13%	3%	11%
기타	14%	2%	2%	3%	5%
미용	1%	0%	20%	0%	2%
문화	1%	0%	2%	1%	1%
바우처	1%	0%	7%	0%	1%
봉사	2%	0%	0%	1%	1%
일자리	2%	0%	0%	2%	1%



[그림 5] 선호하는 복지관 프로그램 비율(합계)

### 3) 복지관 방문 시 이동수단

복지관 방문 시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도보'로 응답한 비율이 77%로 가장 높았다. B 복지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4개 복지관 중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A 복지관의 기타 의견으로 전동스쿠터(1명), 전동차(7명), 휠체어(1명), C 복지관의 기타 의견으로 자전거(1명), 전동차(1명)가 있었다. A, C 복지관의 경우 도보로 시설을 방문하는 비율이 각각 89%, 92%로 높으며, 이것은 도보를 이용해 복지관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관의 평균 이용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보 이용과 복지관 방문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방문소요시간이 짧은 것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복지관 이용기관 참조).

[표 7] 복지관 방문 시 이동수단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도보(걸어서)	89%	72%	92%	54%	77%
복지관차량	0%	0%	0%	33%	8%
대중교통	1%	28%	5%	9%	10%
자가용	0%	0%	0%	4%	1%
기타	9%	0%	3%	0%	3%

### 4) 복지관 방문 시 소요시간(이동시간)

복지관 방문 시 평균 소요시간은 18.1분이며 각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9) A 복지관과 C 복지관의 평균 방문소요시간이 나머지 두 기관에 비해 짧았다.

[표 8] 복지관 방문 시 소요시간(이동시간)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10분 이내	83%	19%	58%	29%	49%
10-20분	12%	36%	28%	35%	27%
20-30분	3%	18%	11%	17%	12%
30-40분	2%	13%	3%	16%	8%
40-50분	0%	0%	0%	0%	0%
50-60분	0%	7%	0%	2%	2%
60분 초과	0%	6%	0%	0%	1%
평균	9.1분	29.6분	13.7분	21.7분	18.1분

### 5) 복지관 방문 시 복지관 체류시간

복지관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7 시간이며 각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10) 전체적으로는 '1시간 이내'(25%), '2시간'(24%), '3시간'(27%)으로 응답한 비율이 비슷했으며, 4시간 이내로 머무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 중 87%이다.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체류하는 평균시간은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2.7시간,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3.0시간으로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오래 복지관에 머무른다.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운행시간 때문에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체류시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9) ANOVA, p-value <0.0000000000000000

10) ANOVA p-value = 0.000000000000001

[표 9] 복지관 방문 시 복지관 체류시간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1시간 이내	44%	6%	35%	13%	25%
2시간	12%	33%	28%	26%	24%
3시간	21%	49%	12%	27%	27%
4시간	7%	6%	14%	14%	10%
5시간	6%	0%	4%	6%	4%
6시간	8%	1%	5%	10%	6%
7시간	1%	4%	1%	3%	2%
8시간	0%	0%	0%	1%	0%
9시간 이상	0%	0%	1%	0%	0%
평균	2.4시간	2.8시간	2.4시간	3.2시간	2.7시간

### 3.5 노인의 서비스 욕구

#### 1) 노인복지 이외의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길 바라는 서비스에 대해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하였다. 복지관에서 노인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비스 중 보건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응답률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A 복지관은 61%, B 복지관과 C 복지관은 58%, D 복지관은 57%로 유사한 응답률을 보인다.

[표 10] 노인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길 바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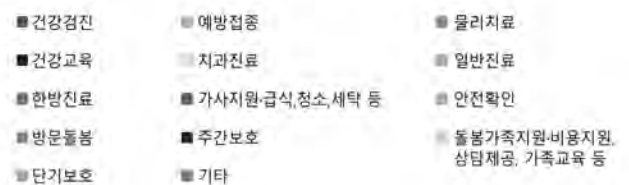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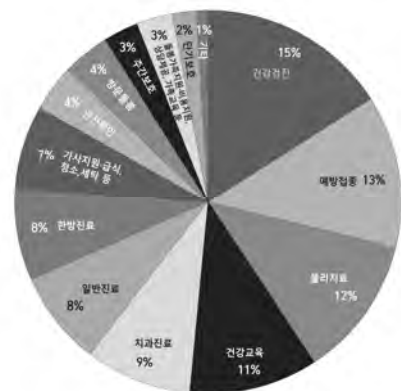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보건 및 건강서비스	61%	58%	58%	57%	59%
장애인 복지서비스	18%	14%	10%	13%	14%
아동 복지서비스	8%	17%	4%	13%	10%
없음	13%	11%	28%	17%	17%

#### 2)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공되길 바라는 항목에 대해 복수 응답하였다.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는 응답 비율은 77%이며, 건강검진은 모든 복지관에서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 기타 응답으로 A 복지관에서는 소통 프로그램 공간 1명, 요양보호사 요구 1명, 건강관리(물리치료, 재활, 운동) 1명, B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 3명이 있었고, C 복지관에서는 급식 2명, 건강관리(재활, 운동) 1명이 있었다.

[표 11] 복지관 선호 프로그램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건강검진	15%	15%	17%	17%	16%
예방접종	10%	13%	14%	14%	13%
물리치료	13%	13%	8%	14%	12%
건강교육	7%	12%	10%	15%	11%
치과진료	12%	7%	8%	9%	9%
한방진료	9%	9%	7%	8%	8%
일반진료	11%	5%	10%	7%	8%
급식, 청소,세탁 등	8%	7%	7%	4%	7%
방문돌봄	7%	3%	4%	4%	4%
안전확인	3%	5%	5%	4%	4%
주간보호	1%	4%	4%	2%	3%
돌봄가족지원 <sup>11)</sup>	3%	2%	3%	2%	3%
단기보호	0%	3%	4%	1%	2%
기타	1%	1%	1%	0%	1%



[그림 6] 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비스 비율(전체 표본)

### 3.6 선호하는 복지관 형태

선호하는 복지관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67%가 주거지 인근 작은 규모의 복지관을 선호했으며, 33%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대규모 복지관을 선호했다. 특히 D 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차량 이용자가 많아 다른 복지관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대규모 복지관에 대한 선호도가 작은 규모의 복지관보다 높았다.

11) 비용지원, 상담제공, 가족교육 등

[표 12] 노인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길 바라는 서비스

구분	A 복지관	B 복지관	C 복지관	D 복지관	합계
작은 규모, 집 가까이 있는 형태, 도보이용, 1~2개 동마다 설치	72%	73%	85%	39%	67%
다양한 서비스 제공, 큰 규모, 집과 먼 형태, 차량 이용, 시군구에 1~2개소 설치	28%	27%	15%	61%	33%

####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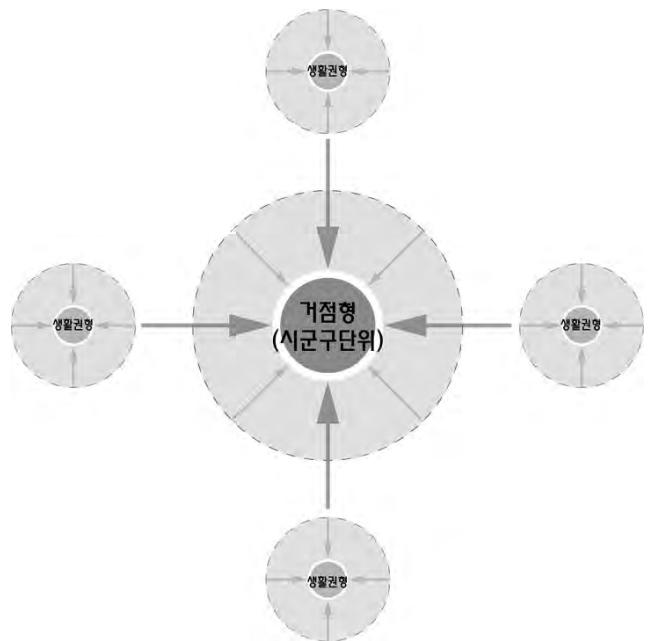
복지관 이용자들의 선호 프로그램 및 노인서비스 욕구를 조사했을 때 모두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병원의 의료 지원 봉사료 노인들의 진료를 간혹 진행한다. 설문을 진행하며 응답노인들은 복지관에 의사가 상주하여 센터 안에 보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의 욕구가 높았다. 향후 통합돌봄센터 프로그램 계획 시 복지관 이용객의 보건서비스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분절하여 제공하였다.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며 일원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공유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한 복지관의 위치는 임대아파트 밀집지역(A), 저층주택 밀집지역(B, C), 그리고 일반아파트 밀집지역(D) 등으로 구분되며 복지관 입지에 따라 노인들의 다른 응답특성을 보여준다. 복지관 방문 시 보통 일반인에게 5~10분 소요되는 거리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평균 18분가량 소요되었다. 노인이라는 사용자 특성상 오랜 걸음은 힘들어 이동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소지는 복지관과 가까우나 복지관 방문에 10-20분, 20-30분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A, C 복지관의 경우 도보로 시설을 방문하는 비율이 각각 89%, 92%로 높으며, 이것은 두 복지관의 평균 이용기간이 긴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복지관 평균 이용기간은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2011.0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2013.5년)보다 약 2.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복지관까지 오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도보 14.0분, 복지관 차량 27.5분, 대중교통 43.5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체류하는 평균시간은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2.7시간,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3.0시간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항을 종합할 때 커뮤니

12) D 복지관은 비교적 최근(2011년)에 건립되었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 D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복지관차량을 운영하지 않음. 평균이용기간에 대한 T검정에서 P value=0.002로 나타나 이용기간의 차이가 유의미함.

티 케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장소에 돌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하철역과 가까운 것이 좋다.

중소형 복지관(A,B,C)에 다니는 응답자는 작은 복지관이 집 가까이 있는 형태를 선호하였고, 대형 복지관(D)에 다니는 응답자는 집에서 멀더라도 큰 복지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의 틀 속에서 시설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들이 자신들의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넓은 활동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대규모의 통합돌봄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 후 점차적으로 생활권마다 소규모의 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활권형 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아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생활권형 서비스대상지역에 사는 노인이라도 거점형 센터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 복지관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7] 거점형과 생활권형 통합돌봄센터 연계

본 연구는 경기 남부의 일부 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노인의 전체 특성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관의 규모에 대한 선호도가 노인들의 복지관 이용경험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통합돌봄센터의 규모설정을 위한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센터 건립시 복지관과 보건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시설의 위치선정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태경,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원칙", 의료정책포럼.
- 권순정 외,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모델개발연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포용적 지역공동체 돌봄을 위한 제 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 보건복지부, 2019,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석재은 외, 2018,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른 노인 돌봄종합사회서비스 사업의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선우덕, 2017,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
- 오성훈, 2018,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고서.
- 오영인, 201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 이유진·김의준, 2015, "의료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27권 제1호.
- 이유진·최명섭, 2018, "노인 인구 밀집지역의 시공간적 분포와 결정요인 분석-서울 생활인구 빅데이터의 활용-",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
- 전경희 외, 2017, "2017년도 노인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 전용호, 2018,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한국노인복지학회
- 정은하, 2016,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서울정책아카이브.
- 한수경·이희연, 2015, "서울대도시권 고령자의 시간대별 대중교통 통행흐름 특성과 통행 목적지의 유인 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 16 권 제 2호.
- 통계청 2019, "2019 고령자 통계".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접수 : 2020년 04월 21일

1차 심사완료 : 2020년 05월 08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05월 21일

3인 익명 심사 필